
새시대 교수법 157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Children need love, especially when they do not deserve it.

- Harold S. Hulbert

"M 세대" 학생 맞이하기 2

강의 내용 전달만큼 강의실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강의 내용 전달에 100% 치중해도 다 전하지 못할 정보와 지식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시대에 도달했는데 오히려 상당한 강의 시간과 교수님의 정신력을 "강의실 관리"에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강의실 관리에는 학습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 학생들의 학습 참여 유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호에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M 세대" 학생들을 맞이하는 교수법을 지니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1) 일단 학생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공부할 준비와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미워지고 이런 꼬락서니가 되어버린 우리 교육 현실을 탓하게 됩니다. 고개가 저절로 흔들려지며 교육부를 한탄하게 되고 막막한 절망감에서 한숨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강의실이 계속해서 산만하면 신경이 곤뎠 서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벌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묻지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꾸로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그들을 이해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 붕괴의 원인은 복잡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생들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더욱이 교수님의 탓도 아닌 것입니다. .

수업은 이렇게 탓할 수 없는 두 사람, 즉 학생과 교수님의 만남입니다.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은 존재하는 셈입니다.

오히려 학생과 교수님을 잘못된 교육 문화의 두 피해자라고 본다면 "과부 설움은 동무과부가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서로 동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과 학생이 "동지"가 된다?? 이런 똥판지같은 소리가 어디 있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화시대에는 교수님을 "co-student"라고 칭하게 됩니다. 비행기에 파일럿(pilot)과 보조비행사(co-pilot)가 있듯이 강의실에는 학생(student)과 학생들의 배움을 보조하는 교수님(co-student)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교수님이 교육을 조정하는 파일럿이고 학생은 가만히 앉아 있는 승객이 이젠 아닙니다. 평생교육이 중요한 시대에는 학생이 교육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고 교수님은 학생들이 훨훨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동적(mobile) 모습이 머리 속에 그려집니다. 이것이야 참다운 M(mobile) 세대 학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호에는 두 번째 단계로 "해결방안을 교수님의 행동 범위 안에서 찾는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소리 코너>>

"M 세대"의 M은 mobile(유동적)이라는 단어의 첫 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경북대 김덕규 교수님께서 온갖 무선장비와 교통수단을 갖춘 요즘 젊은이들이 "전투" 상황에 놓여있는 듯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서나 출동하고 돌격할 수 있는 유동적 상태를 노상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입시 철에 보면 실감나는 비유입니다. 이차, 삼차 선발 결과에 따라 우르르 다른 대학으로 옮겨다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입학한 후 첫 2년 동안 전학하는 경우도 무척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 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니는 학생은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전학을 적어도 한번은 합니다.)

한국의 경우 "M 세대"의 M은 mistrusting(불신하는)이라는 단어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이 없어진다, 입학이 쉬워진다, 한가지만 잘해도 된다 등 약속하고는 제대로 이행된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러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